

『캔터베리 이야기』에 투영된 중세 시대 노인의 이미지와 특징*

이 동 춘

대구대학교

14, 15세기 중세 후반 영국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정확한 나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도 드물었을 뿐더러 대다수가 자신의 나이를 알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했다. 군대, 세무, 그리고 종교적 의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그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나이가 필요하지 않았다. 물론 일부 귀족집안 자제들의 경우는 예외였다. 일부 특수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세 영국 사람들에게 나이란 오늘날처럼 시간의 흐름을 숫자로서 계산하여 정확하게 환산되는 것이기보다는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였다.¹ 다시 말해서, 당시 나이란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서 페트라르카(Petrarch)의 말대로 자신이 늙었다고 판단되면 나이가 든 것이다(265). 뿐만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자신의 나이를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재산을 상속받을 나이가 되었다거나, 결혼하고 세금

* 본 논문은 2015년 대구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¹ 중세 시대 나이와 관련한 자료인 J. A. Burrow, *The Ages of Man* (Oxford: Clarendon P, 1986); Joel T. Rosenthal, *Old Age in Late Medieval England, The Middle Ages Serie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6); Deborah Youngs, *The Life-cycle in Western Europe, c.1300-c.1500* (Manchester: Manchester UP)을 참고.

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나이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심지어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나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로 쓰인 증명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세 시대 나이 개념이 매우 주관적이며 불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Finucane 8).

수치상으로 정확한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 있었으나 당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자신이 어떤 나이 집단에 속하는지 알고는 있었다. 중세 시대 나이 개념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한 버로우(John Burrow)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인생을 셋, 넷, 여섯 혹은 일곱 단계로 구분하였다.² 예를 들어, 세 단계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하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일곱 단계는 점성술과 천문학적 관점에서 인생이 행성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기본적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초서의 여장부(The Wife of Bath)가 언급하고 있는 비너스(Venus)는 그녀가 한창 아름다웠던 이십 대에 해당한다면, 「기사 이야기」(The Knight's Tale)에서 주피터(Jupiter)는 육십 대, 그리고 주피터의 아버지이며 비너스의 할아버지 격인 새턴(Saturn)은 삶의 마지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나이 구분들 가운데 중세 시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네 단계 구분이었다. 사계(seasons), 인간의 기질을 좌우하는 네 종류의 체액(humours),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elements) 등에 기초하여 인생을 유년기(childhood), 청년기(youth), 성숙기(maturity), 노년기(old age)로 구분하였다. 「상인의 이야기」(The Merchant's Tale) 속 재뉴어리(January)와 메이(May)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구분을 초서 역시 사용하고 있다.

네 단계 구분에서 노년기는 계절상 겨울,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물에 해당하며, 체액은 기질이 차갑고(cold) 축축한(moist) 담즙(phlegm)에 해당한다. 물론 나이에 대한 수치상 객관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당시 정확한 기준은 없었으나, 대략 육체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사십 대 중반부터 사회 활동이 거의 없는 육십 대까지를 당시 사람들은 노인 시기로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 시기는 노년기(old age)와 노망기(dotage)로 좀더 세분화되는데, 몸의 열기는 물론 습기까지도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메마른 기운이 몸을 채우기 시작하는 노년을 넘어 육십 대에 이르면 노망기에 이른다고 보

² Burrow의 저서, 1,2권; Rosenthal의 저서, 11권 외에 Shulamith Shahar, *Growing Old in the Middle Ages* (New York: Routledge, 1995), Chapter 1을 참고.

있다(Draper 528).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 중반 정도이며 삼십 대를 인생의 황금기로 여겼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시 노인 나이의 시작이 사십 대 중반이라는 것이 그리 놀라운 것만은 아닌 듯싶다. 게다가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기근과 의료체계의 부재, 그리고 흑사병의 출현은 평균 수명은 물론 노인의 나이를 하향시키는데 일정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나이 구분을 근거로 볼 때, 본 논문에서 논하게 될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The Pardoner's Tale) 속 노인(Old Man)을 포함하여 「기사의 이야기」의 이지우스(Egeus), 그리고 재뉴어리가 노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노인들인 반면, 패블리오(fabliaux) 계통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지기(the Reeve), 존(John) 그리고 바쓰의 여장부의 첫 세 명의 남편들은 중세 시대 통념적인 나이로 볼 때 노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서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여 당시 노인, 그리고 '나이 들'(ageing)의 일반적인 양상 및 사회적 통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중세 후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를 초서의 작품 속 노인들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 청지기의 고백: 노인, '나이 들'의 양상과 이미지

「청지기 이야기」의 프롤로그에는 방앗간 주인인 로빈(Robyn)과는 여러 가지로 대조를 보이는 청지기의 깡마른 외모와 까칠한 성품과 함께 이야기꾼으로서 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청지기 이야기」의 프롤로그는 「바쓰의 여장부 이야기」나 「면죄부 판매자 이야기」의 프롤로그에 비하여 분량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들 프롤로그 못지않게 이야기꾼인 청지기의 자기 고백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프롤로그 시작 부분에서 여관주인이 개입하는 중반에 이르기까지 청지기는 감정에 휩싸여 '나이 들'으로 인한 좌절과 상실, 그리고 '나이 들'의 증상을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하며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MacLaine 129; Hefferman 37). 맥레이인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청지기는 노인을 들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다가 마구간으로 물러난 한 마리 말에 비유하고 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던 시절도

지났고, 말라비틀어진 건초나 먹을 나이오” [Gras tyme is doon; my fodder is now forage (3868)].³

여기에서 청지기는 당시 중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통상적인 이미지를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봄철 초장에 널려있는 푸른빛의 촉촉한 풀이 겨울의 메마른 건초로 변화된 과정을 통하여 인생 노년기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청지기는 말하고 있다. 인간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풀에 비유하는 경우는 초서의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성서(Psalm, Isaiah)나 초서와 동시대 작가인 가우어(John Gower)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치 풀잎이 건초로 변하듯, 생명의 기원이며 삶을 유지시키는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열기가 나이가 들면서 육체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육체가 점점 식어가고 말라가는 것이 노화 과정이라는 사실을 초서는 물론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듯싶다.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몸의 열기와 수분(moisture)이 나이가 들면서 건초처럼 모두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단순히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의학적 근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에버레스트(Carol Everest)는 말한다(Sex and Old Age, 99-103).

당시 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나이 들’의 증상은 이것 외에도 청지기가 말하는 머리 색깔에도 적용된다. 청지기는 또 다른 노화 현상으로 몸의 열기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머리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고 마음에 고통이마져 슬게 되었다고 한탄을 한다(3869-70). ‘나이 들’으로 인한 청지기의 깊은 상실과 회한은 뒤이어 “타고 남은 잿더미”(in oure asshe)라는 표현에 압축되어 있다. 마치 몸에서 열기가 다 소진되어 이제 남은 것은 하얀 잿더미뿐이라는 그의 표현은 ‘나이 들’의 회한을 매우 통렬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기에 충분하다. 프롤로그에서 ‘나이 들’에 따른 인체의 변화를 언급해가던 청지기의 분노 섞인 감정은 서서히 격해져 터져 나온다:

“네 개의 타다 남은 불씨를 알려주겠소.
분노, 탐욕, 오만, 거짓이 그것시오.

³ 본 논문에 인용된 초서의 작품은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이동일, 이동춘 역 『캔터베리 이야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을 따름.

이 네 개의 불씨들은 우리 늙은이들의 속성이오”

“Four gleedes han we, which I shal devyse
Avauntyng, liyng, anger, coveitise;
This foure sparkes longen unto eelde”- (3883-85)

그러나 청지기가 그토록 강한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가 젊은 시절과 비교되는 ‘나이 들’에 따른 인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육체의 쇠락과 함께 찾아오는 자신의 성적 능력의 퇴보, 이른바 ‘성적 불능’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나이 들’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언급해가는 과정에서 청지기가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는 메타포에서 드러난다. 돌배나무의 열매(the medlar fruit)가 익어가면서 점점 못쓰게 되듯이 자신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쓰레기나 쪼터미 속에서 썩어버릴 것이 두렵다고 청지기는 고백하고 있다(3871-75). 돌배처럼 익기 전에 육체가 쇠락하여 원하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지 못할까 청지기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늙어 신체적으로 허약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은 절대로 꺼지는 법이 없으며 젊은이들 못지않게 욕망을 분출할 수도 있다고 청지기는 우회적으로 말한다: “세상이 피리를 불어주는 동안 우리는 춤을 춘다오” [We hopen alwey whil that the world wol pype (3876)]. 젊은이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춤을 추는 청지기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 성적인 욕망이 초서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을지 충분히 짐작된다. 청지기가 표출하는 성적 욕망과 이를 충족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신체적 쇠락에 대한 불만은 부추(leek)라는 이미지에서 드러나고 있다. 부추는 “머리가 흰데 푸른 꼬리를 가지고 있다” [To have an hoor heed and a grene tayl (3878)]은 청지기의 말처럼, 신체는 노인이나 마음 속 욕망만은 젊은이들처럼 푸르고 싱싱하다는 말이다.⁴

⁴ 청지기의 신체와 마음 속 욕망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부추는 일부 초서 편집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보카치오(Boccaccio)의 『데카메론』(Decameron)에도 언급되고 있는 이미지이다. 다만 보카치오는 성을 자연의 선물(a gift of Nature)이며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반면 초서는 노인이 지니고 있는 성적인 욕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John Finlayson, “Of leeks and old men: Chaucer and Boccaccio,” *Studia Neophilologica* 70 (1998): 35-9.

부추의 이미지에 암시되어 있는 청지기의 이룰 수 없는 성적인 욕망을 초서는 「총 서시」(The General Prologue)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 초서는 청지기가 푸르고 회색빛의 긴 코트에 “녹이 슨 칼”(rusty blade)을 차고 있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포어핸드(Brooks Forehand)의 지적처럼 청지기의 잃어버린 젊음을 상징하다(984). 특히 “녹이 슨 칼”에는 성적인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칼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며 그 칼에 녹이 슬었다는 말은 나이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Everest 111). 칼과 성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일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며, 이는 자신의 칼로 상처를 입는 법은 없다(1839-40)는 「상인의 이야기」 속 재뉴어리의 논리에서도 나타난다. 성적 욕망은 그대로이나 ‘녹이 슨 칼’처럼 노쇠한 육체로 인하여 더 이상 자신의 연장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지기는 술통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때부터 줄곧 술이 흘러나와
술통은 이제 비어 거의 남은 것이 없네.
생명의 물줄기는 가장자리로 한 방울씩 떨어질 뿐이랴오.

And ever sithe hath so the tappe y-ronne,
Til that almost al empty is the tonne.
The stream of lyf now droppeth on the chimbe.

나이가 들어 “생명의 물줄기”가 사라져간다는 표현에 역시 성적인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사라져가는 남성의 체액의 하나인 정액(semen)을 의미한다. 초서 자신이 런던 포도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인지 청지기의 ‘성적 불능’을 부여주기 위한 술통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앞서 청지기가 사용한 이미지들과는 달리 마지막 술통의 이미지에는 ‘나이 듦’에 따른 분노와 상실감보다는 그의 체념이 묻어난다. 결국 청지기는 노인으로서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은 ‘쓸모 있는’ 칼이 아니라 허뿐이며, 이를 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어리석은 일들을 뇌까리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실토한다.

II. 노인과 ‘나이 들’에 대한 두 가지 양상: 긍정(적) 대(對) 부정(적)

당시 의학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근거로 초서는 「청지기 이야기」의 프롤로그에서 ‘나이 들’에 따른 신체적 변화 및 성적 불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 들’에 따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신체적 현상들 외에 초서는 노인의 두 가지 양상을 청지기의 입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는 노인이 보여주는 지나친 성적 욕망의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육체는 쇠락하나 ‘나이 들’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경험과 지혜이다. 「청지기의 이야기」와 프롤로그에 묘사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하여 첫 번째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얼핏 언급했다시피,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은이들처럼 세상의 피리 소리에 흥겨워 춤을 추는 청지기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당시 독자들은 웃음을 금치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꺼지지 않는 성적 환상을 그의 이야기 속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마치 바쓰의 여장부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그녀의 소망을 실현시키고 있듯이, 청지기 역시 젊은 대학생 존(John)과 알렌(Allen)처럼 과거 녹슬지 않은 연장으로 목수에게 보복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를 이야기 속에서 발산하고 있다.

심지어 「총 서시」에 초서가 부각시키고 있는 청지기의 깡마른 체구, 특히 그의 “길면서도 가느다란 다리”는 청지기의 지나친 성적 욕망과 성 생활을 입증해 주고 있다(Curry 75). 지나친 성 생활로 인하여 체액(정액)이 방출되면 신체 부위가 서서히 메말라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다리 부분이 가늘게 된다고 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듯싶다. 지나친 성욕이나 성적 관계가 육체를 소진시키고 죽음을 재촉하거나 심지어 ‘신체적 불능’까지도 이르게 한다는 당시 의학적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초서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포함한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노인의 지나친 성욕이나 성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⁵ 시골사제(the Parson)는 『캔터베리 이야기』 속 육욕(肉慾)으로 가득찬 일부 노인들을 “늙어 노망한 난봉꾼들”이라 말하며 이들의 행태를 어디에서나 자기 내키는 대로 오줌을 갈기는 개에 비유하고 있다. 심지어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

⁵ John Gower, *Mirour*, 9685ff., trans. Wilson, p. 133; Danielle Jacquart and Claude Thomasset, *Sexuality and Medicine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Polity P, 1985), p. 56을 참조. 노년의 지나친 성생활에 대한 위험을 말해주는 있는 논문으로 Emerson Brown, Jr., “Januarie’s ‘Unlikely Elde,’” *NM* 74 (1973): 99를 참고.

와 빈번히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시골사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858). 노인과 성에 관한 당시 의학적 근거나 초서의 태도를 감안할 때, 나이 들어가면서까지 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는 청지기의 모습은 노인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성욕 외에 그에게 남아있는 오만, 거짓, 탐욕과 분노는 초서나 동시대 사람들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청지기를 이상적인 노인의 이미지와는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들이다.

노인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초서는 노인의 또 다른 양상을 얼핏 청지기의 프롤로그에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현 상태를 돌배나무 열매에 비유하면서 청지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돌배 열매는) 썩어질 때야 비로소 익기 마련이오” [Til we be roten, kan we nat be rype (3875)]. 물론 이것은 육체적 노쇠로 인하여 불능 상태에 놓인 자신의 성에 대한 청지기의 냉소적 한탄이다. 그러나 마치 돌배나무 열매가 썩기 시작할 때까지 먹는데 적합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 시간이 지나 노년이 되어야만 성숙하고 익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노인이 되어 육체적으로는 돌배 열매처럼 실용성은 상실했을 지언정 세파의 흐름 속에서 겹겹이 쌓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내적인 성숙함이 노인에게는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짚게나마 청지기는 말하고 있다. 비록 프롤로그에서 그의 모든 욕구불만이 성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짚게나마 그가 언급한 노인의 긍정적 면모에 대하여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청지기의 프롤로그에 나타나 있듯이, 노인에 대한 양면적 이미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져왔다. ‘나이 듦’(aging) 혹은 노인에 대한 초서의 양면적 사고는 그리스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 권위 있는 작품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나 반대로 지혜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생각은 호머의 『일리아드』(Iliad)에 등장하는 네스터(Nestor)와 같은 인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네스터에게는 여러 해를 살아온 사람에게 부여되는 존경의 표시가 항상 뒤따른다. 이외에도 리처드슨(Bessie Richardson)은 다양한 문학 작품의 예를 들어가며 그리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초자연적 마법의 힘을 대표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21).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찬양만을 리처드슨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이 듦’과 함께 육체적 쇠퇴가 오게 되며, ‘나이 듦’의 두려움은 햇수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에 따

른 육체적 병약함에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59).

노인에 대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양면적 태도, 다시 말해서, ‘나이 들’에 따른 경외와 존경심, 그리고 이로 인한 육체적 병약함은 로마 사람들도 그대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예로서 키케로(Cicero)는 노인과 ‘나이 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키케로는 노년을 이른바 “반(半) 신성의 단계”(semi-divine stage)로까지 칭송하며 노년에 걸맞은 다양한 일들을 설명한다(247). 노년에 대한 키케로의 긍정적 견해는 세네카(Seneca)로 이어진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 역시 노인, 그리고 ‘나이 들’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만을 가진 것은 물론 아니었다. 로마의 대표적 풍자작가인 루시언(Lucian)은 노인에 대한 장밋빛 찬사를 부인하고 오히려 ‘나이 들’에 대한 부정적 양상을 자신의 작품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노인 혹은 ‘나이 들’에 대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이 같은 양면성은 초서가 살던 중세 시대 영국 사람들은 물론 서구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 시대에 들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양면적 관점은 더욱 더 두드러진다.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삶과 죽음의 역사』(History of Life and Death)에서 ‘나이 들’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육체적 현상들은 물론 노년에 얻게 되는 칭송받을 만한 성품으로 절제된 욕망, 신중함, 겸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탐욕, 의심 많음,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 역정 내기(peevishness) 등을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성품으로서 베이컨은 제시하기도 한다(152-55). 노인에 대한 초서의 관점 역시 베이컨의 관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인다. 청지기의 모습에 나타나 있듯이, 그의 절제되지 않은 성적 욕망이나 탐욕, 분노 등은 베이컨이 지적하고 있는 노인의 부정적인 특성 등과 일치하고 있다. 반면 초서 역시 신중함과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시하는 이상적인 노인의 모습을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초서는 노인의 ‘성적인 욕구’를 부각시키고 있는 청지기를 포함한 패블리오 계열의 작품 속 노인들을 통하여 노인의 부정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긍정적 면모 역시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이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제시하고 있는 일부 노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준다.

A. 긍정적 노인상(像)

앵글로 색슨(Anglo-Saxon) 시대 문학작품부터 시작해서 중세 성인전이나 기도서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덕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혜’(sapience)를 손꼽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힘’이나 ‘열정’에 있어 젊은이와는 견줄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는 노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겸손하고 온화한 자세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노인의 이상적인 모습임을 초서 이전의 많은 문학작품들은 보여주고 있다(Burrow 107). 초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멜리비의 이야기」(The Tale of Melibee)에서 멜리비는 복수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이때 젊은 사람 대부분은 분노가 식기 전에 “싸워라”(Werre! Werre!)고 소리친다. 뒤 이어 “나이 들은 현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oon of thise olde wise)이 일어나 복수를 종용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쟁이란, 처음에는 원하는 모두가 들어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문은 높고도 넓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전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Werre at his bigynnyng hath so greet an entryng and so large that every wight may entre whan hym liketh and lightly fynde were; (1040)]. 마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보다는 상대를 인정하는 듯 겸손한 자세로 노인은 전쟁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설파하기 시작한다. 아무런 죄가 없는 힘없는 아이들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노인의 말은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매우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 보인다(1041-2). 결론적으로 그 노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조언”과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비록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하나 노인의 이상적인 덕목인 지혜와 경험, 이를 바탕으로 한 조언이 힘과 혈기로 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초서는 보여주고 있다. 젊은이들의 부정적 반응과는 관계없이 노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초서의 노력은 프랑스 원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인을 수식하는 형용사—“현명한”(wise)—의 반복적 사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Waterhouse and Griffiths 354). 뿐만 아니라, 프루덴스(Prudence)가 내리는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나이 먹은 사람 충고가 “현명하고 진실하다”(right wisely and right

sooth)는 사실을 초서 역시 우회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1341; 1343).

『멜리비의 이야기』 속 나이든 현명한 사람과 『기사의 이야기』 속 이지우스는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사소하게는 나이가 든 노인들이 이야기 도중에 깜짝 등장하여 독자들을 다소 놀라게 하는 반면,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는 조언이 주인공이 처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사도에 근거한 자신의 세계관에 맞추어 만사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환상이 알시테(Arcite)의 죽음으로 순식간에 무너지 내리자 테세우스(Theseus)는 순간적으로 공황상태를 맞이한다. 그러한 테세우스에게 이지우스는 세상의 수많은 부침(浮沈)을 경험한 나이 많은 지혜로운 조언자로 등장한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으며,
 몸소 인생의 길흉화복을 체험했으니,
 희로애락이 번갈아 일어나는 세상의 원리를
 많은 예와 설명을 통해 알려주었다.

... knew this worldes transmutacioun,
 As he hadde seyn it chaunge bothe up and down,
 Joye after wo, and wo after gladnesse,
 And shewed hem ensamples and liknesse. (2837-42)

테세우스에게 이지우스는 이른바 “세속을 경시하라”(contemptus mundi)는 조언을 해준다: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찬 통로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들은 그 길을 오고가는 순례자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종극을 고하나라” [This world nys but a thurghfare ful of wo,/And we been pilgrymes, passynge to and fro./Deeth is an ende of every worldly soore (2847-49)]. 무엇보다 “세상 누구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며 인간은 죽음을 향해가는 순례자에 불과하다”는 이지우스의 말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열정을 다 내려놓은 죽음을 앞에 둔 노인에게서나 가능한 것이다. 누구보다 현세에 집착이 강하며 자신이 지켜온 기사도의 신념에 투철한 테세우스에게 앞서 언급한 『멜리비 이야기』 속 젊은이들처럼 노인의 이 같은 조언이 달갑게 들리기 만무하다. 이지우스의 조언과는 상관없이 테세우스가 결국에는 젊은 날의 명예와 명성을 들먹

이면서 알시테의 죽음을 자신의 논리로 수습하는 것은 어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니테키(Alicia Nitecki)의 주장처럼 14세기 영국 문학 작품들 어디에서도 이지우스만큼 나이 든 현자(賢者)의 훌륭한 이미지와 그의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우러나온 연설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지 모른다(83). 그러나 테세우스가 이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면 현자며 현자의 연설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자의 모습을 띤 노인, 그리고 혈기와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젊은이들 사이의 대립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이다. 면죄부 판매자가 하는 이야기 속 “노인”(the Old Man)에 대한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으나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게 노인의 역할을 정립해주는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오웬(W. J. B. Owen)의 주장대로 알레고리적이거나 상징적 의미를 떠나 작품 속 “노인”을 있는 그대로 나이 들어 고통 속에서 죽음을 갈망하는 실제 노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49-55). 이러한 가정에서 볼 때, “노인”은 죽음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는 세 명의 젊은 난봉꾼들과 외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이룬다. “노인”과 젊은 세 명의 난봉꾼들이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둘 사이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드러난다. 전자는 겸손하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속의 물질적 욕심을 멀리하고 지혜와 종교적 믿음을 겸비한 노인에게 해당한다. 반면 후자는 자만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인내할 줄 모르며 어리석은 젊은이들에 해당한다.

둘 사이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이다. “노인”은 ‘나이 들’으로 인하여 경험했던 온갖 고통들 때문에 한시라도 죽음을 갈망하는 반면 젊은 난봉꾼들은 오히려 죽음을 없애서 세속의 온갖 즐거움을 영원히 향유하고자 한다. 죽음을 없애겠다는 젊은이들의 혈기 가득한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죽음을 이겨낸 신이라도 되는 양 ‘자만’(pride)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나이가 들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며, 이러한 운명이 젊은이들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사실을 “노인”은 말로서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이상적인 노인들의 어떠한 조언이나 가르침보다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 속 “노인”이 주는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의미를 넘어 경고처럼 매우 통렬하게 느껴진다.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는 경고 외에 이지우스처럼 “노인”은 “세

속을 경시하라”(contemptus mundi)는 무언의 가르침을 물질적 탐욕과 세속의 죄악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한다. 나이 들고 가난한 모습의 “노인”은 중세 시대 보편적인 노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당시 노인의 사실적인 모습을 넘어 초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대지(the earth-mother)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노인”의 모습에서 ‘인간의 조건’(la condition humaine) 보여주려는 듯싶다. 즉 무(無)의 상태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노인”은 자신이 걸치고 있는 옷과 행태를 통하여 세속적 탐욕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지의 품으로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려는 “노인”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와 같은 부정적 노인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성급함이나 분노, 혹은 자만심 등을 작품 속 “노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태도와는 달리 이지우스처럼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다 깨달은 현자인 양 “노인”의 행동과 모습에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신중함과 지혜가 묻어난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듦’으로 인한 고통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신의 뜻에 의탁하는 “노인”의 모습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언행을 서슴지 않는 젊은 난봉꾼들과 대조를 이룬다(715, 726, 748). 비록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외모와 행동, 그리고 말투에도 불구하고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 속 “노인”은 앞서 언급한 이지우스나 『멜리비 이야기』 속 “나이 든 현명한 조연자”처럼 당시 초서가 생각하고 있는 노인의 이상적인 덕목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이러한 덕목들을 바탕으로 세상 경험이 일천한 젊은이들에게 도덕적 가르침 내지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연자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지우스나 “나이 든 현명한 조연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 속 “노인”은 말보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행태를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 “노인”이 지닌 덕목들과 역할을 감안할 때, “노인”은 스테드만(John Steadman)의 지적처럼 개성을 지닌 특별한 노인이기보다는 중세 시대 이상적 노인의 전형(type)으로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싶다(123). 그러나 “...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우는 사람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것과 같이 부질 없는 일이라”는 『멜리비 이야기』의 화자의 말처럼, ‘늙는다는 것’ ‘늙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과 궁핍,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노인”이 젊은 난봉꾼들에게 만화경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나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다.

B. 부정적 노인상(像)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작품 속 노인들에 대한 초서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sexuality)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이다. 지나치게 성에 대한 집착이 강한 노인들에 대하여 초서는 부정적이거나 냉소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노인에게 어울리는 이상적인 덕목들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부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초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 전자에 대하여 초서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시 유행했던 의학적 근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에서 열기와 체액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기간이 노인이 되는 사십 대부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인의 지나친 성 욕구 내지 성생활은 신체를 더욱 더 악화시켜 신체적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당시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초서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Youngs 184). 이밖에도 지나친 성욕을 지닌 노인에 대한 초서의 부정적 태도는 당시 종교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골사제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늙어 노망한 난봉꾼”을 개에 비유하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와 음탕한 짓을 하는 것 역시 “자신의 칼로 스스로를 베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당시 의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내용들 외에도 초서가 『캐터베리 이야기』를 집필할 때 그의 나이가 오십 대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그 스스로 노인과 지나친 성적 욕구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초서는 패블리오 계통의 작품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희화화시키고 있는데, 이들 노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다. 일례로 성적인 문제 외에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에서 목수 존의 가장 큰 결점은 ‘나이 들’과 함께 찾아오는 경험과 지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존이 노인에게 적절한 성이 어떤 것인지 분간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야기의 화자인 방앗간 주인이 “사람은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Men sholde wedden after hire estaat (3229)]는 캐토(Cato)의 충고를 존이 알 리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누구보다 존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캐토의 충고 외에도 중세 시대 도덕주의자들(moralists)은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과의 결혼에 대해 탄식하거나 결혼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악덕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악덕들 가운데 나이 든 남편에게서 유난히 음탕함(lechery)과 소유욕(possessiveness)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이들은 말한다. 나이에서 큰 차이가 있는 남녀의 결합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당시 일반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urrow 157). 이외에도 『사랑의 기법』(De Amore)에서 안드레아스(Andreas Capellanus)는 남성은 나이 육십, 그리고 여성은 오십 넘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나이 들어 사랑이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까지 그는 주장한다(11-2).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할 때,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 속 존의 경우처럼 나이 들어 젊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지나치게 성적 욕망을 분출하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으로 여겨졌는지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결혼으로 인하여 존에게 나타나는 질투, 그리고 소유욕 등은 노인이 지나게 되는 부정적인 악덕들에 해당한다. 바쓰의 여장부와 살았던 늙고 부유했던 첫 세 명의 남편들 역시 존과 같은 부류의 노인들이라 할 수 있다.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젊은 여성을 부인으로 맞게 됨으로써 그들이 겪게 되는 고통들을 초서는 적나라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초서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비추고 있지는 않은 채 그 몫을 독자에게 돌리고는 있으나, 초서나 당시 독자들의 반응이 서로 다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목수 존, 청지기 오스왈드, 그리고 바쓰의 세 남편들 외에 절제되지 않는 노인의 성적 욕구 문제를 통하여 초서가 비판적이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상인의 이야기』 속 재뉴어리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리석은 목수 존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오직 마음속으로 욕구를 불태우는 청기와 같은 부정적인 노인들과는 달리 재뉴어리는 당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이성적이며, 충동적인 늙은 바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세 시대 육십의 나이에는 모든 생산 활동이 정지되는 시기이며, 노년기를 훨씬 넘어 ‘노망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성생활 그 자체가 최악시 되어지는 시기였다. 이런 통념 때문인지 육십이 넘는 재뉴어리의 나이, 그리고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적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의 화자도 역시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육십이 지나서야
 신앙심 때문인지 아니면 노망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이 기사는 결혼하겠다는
 열광적인 욕구로 인해

And whan that he was passed sixty yeer,
 Were it for hoolynesse or for dotage,
 I kan nat seye, but swich a greet corage
 Hadde this knyght to been a wedded man (1252-55)

화자는 “corage”라는 단어를 통하여 결혼하겠다는 재뉴어리의 생각이 심사숙고에서 이루어진 결론이기보다는 마치 동물처럼 본능적이며 충동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게다가 작품의 시작 부분에 묘사되어 있는 재뉴어리의 생활은 이상적인 노인들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체적으로 쇠락하는 노년기에 이르러 조용하고 관념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보통의 노인들과는 달리 재뉴어리는 오직 육체적 즐거움만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이른바 “쾌락주의자”(hedonist)이다: “육십 년 동안,... 자신의 구미에 맞는 여자와 육체적인 만족을 즐겨왔죠” [sixty yeer,... /And flowed ay his bodily delyt/On wommen, ther as was his appetyt, (1248-50).⁶

평생을 쾌락적이며 충동적인 삶을 살아온 재뉴어리가 육십이 넘어 젊은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장면은 화자는 물론 당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특히 남자가 나이 들고 백발이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나이에 남자들에게 아내는 부와 영광의 열매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젊고 예쁜 아내를 얻게 된다면,
 그녀에게서 후계자를 얻게 될 것이고,
 기쁨과 위안 속에서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⁶ 재뉴어리의 삶이 오직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의 ‘시력 상실’과의 관계를 당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논문으로 Carol A. Everest, “Sight and Sexual Performance in the Merchant’s Tale,” pp. 91-103을 참조.

To take a wyf it is a glorious thyng,
 And namely whan a man is oold and hoor;
 Thanne is a wyf the fruyt of his tresor.
 Thanne sholde he take a yong wyf and feir,
 On which he myghte engendren hym and heir,
 And lede his lyf in joye and in solas (1267-73)

앞서 언급한 노인의 성욕과 젊은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당시 일반적인 통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재뉴어리의 의도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결혼해야 하는 이유로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삶 속 “기쁨”과 “위안,” 그리고 “후계자”의 필요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과 실제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육체적 쾌락을 재뉴어리는 동일시하고 있다. 그가 하는 말에는 성에 대한 노골적인 탐닉과 충동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오히려 메이(May)와의 첫날밤을 고대하며 성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재뉴어리의 모습에서 그의 음탕함과 육욕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심지어 재뉴어리가 자신의 나이를 망각한 채 정력과 체력을 과시하며 어린 매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장면은 당시 독자들의 조롱을 넘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1757-59).

재뉴어리가 온갖 성적 환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부 장면들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재뉴어리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다. 다시 말해서, 초서는 다소 초연하면서도 냉소적 자세를 견지하며 독자 스스로 재뉴어리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뉴어리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재뉴어리에 대한 초서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기쁨”이나 “위안”과 같은 단어들 외에도 재뉴어리는 결혼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안정”(sikernesse)과 “지복”(felicittee)이라고까지 말한다. 여기에는 재뉴어리가 표면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단어의 의미와 실제 사이의 차이, 즉 아이러니 효과를 통하여 재뉴어리의 실제 모습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초서의 의도가 숨어있다. 종교적이며 윤리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성스러운 용어들을 재뉴어리가 오직 탐하는 육체적 쾌락과 결부시킴으로서 노인으로서 재뉴어리의 부정적인 면모를 초서는 극대화시키고 있다.⁷ 이밖에도 재뉴어리는 “정직한” 혹은 “정직하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필드(Rosalind Field)의 지적처럼 이 또한 아이러니컬하게

사용되어 재뉴어리의 실상을 더욱 더 평가 절하시킨다(42). 실제 자신과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재뉴어리의 모습에서 성적 쾌락주의자로서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청지기가 지적하고 있는 부정적인 노인의 ‘거짓’ 품성까지도 드러나는 셈이다.

이러한 기법들 외에 단순한 어리석음을 넘어 비이성적이며 바보 같은 늙은 재뉴어리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초서는 기존의 이야기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상인의 이야기」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성과 관련하여 재뉴어리를 부정적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초서는 「상인의 이야기」 속 재뉴어리를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에 나오는 등장인물과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기존의 이야기들 어디에도 재뉴어리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질투심을 보이는 하나 음탕한 성품의 노인으로 나오지 않는다. 오직 초서만이 재뉴어리를 지나치게 성에 탐닉하는 노인으로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서가 이야기에서 재뉴어리를 대략적이거나 욕심이 넘은 나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그가 평생을 육체적 쾌락을 위해 살아왔다는 내용은 다른 비슷한 이야기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한 마디로 먹고 자는 것 빼놓고는 오직 육체적 쾌락에만 집착하는 희화화된 늙은 재뉴어리의 모습을 통하여 단순히 당시 독자들에게 즐거움만을 제공하는 것이 작가 초서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과학적 근거와 종교적 영향 아래 초서는 이야기꾼으로서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당시 노인들의 실제 삶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지나친 성욕과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III. 중세 시대 실제 노인들

노년기에 접어든 초서의 입장에서 존, 오스왈드, 그리고 재뉴어리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십이 넘어 『캔터베리 이야기』를 집필한 초서 역시 작품 속 이지우스나 나이 든 현명한 조언자들 못지않게 삶의 여러 부침(浮沈)을 경험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작품 속에 투영된 궁

⁷ 작품 속 “sikernesse”와 “felicitee”의 아이러니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Alcuin Blamires의 *Chaucer, Ethics, and Gender*, pp. 89-92 참조.

정적인 노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노인 이미지 모두 동전의 양면처럼 초서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얻어지는 지혜, 그리고 육체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성적 욕망은 작품에서처럼 일부 특정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당시 노인들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비록 초서가 픽션을 통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여 노인들의 서로 상반된 양상을 그려내고 있지만 이러한 양상은 초서가 살던 당시 노인의 모습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초서가 살던 시대 노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로젠탈(Joel Rosenthal)이나 영스(Deborah Youngs)의 책 속에 언급되어 있는 당시 노인들의 삶이란 매우 고통스럽고 궁핍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처럼 정확한 나이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은퇴할 나이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국가나 교회와 관련한 모든 의무에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벗어나기는 하였다.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서 노인 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세 시대를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이른바 ‘보호 시스템’(care system)은 물론이거니와 연금이나 사회보장 체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영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중세 사회는 노인을 어린아이나 가난한 사람들처럼 도움을 받아야 할 계층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다. 결국 당시 수많은 노인들의 유일한 호구지책은 구걸하는 것이었다(180-1).

이러한 당시 현실을 감안할 때, 초서가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노인”이 여러 많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불가해한 인물이기보다는 오히려 오웬이 주장한 것처럼 당시 노인의 일반적인 유형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노인”이 젊은 난봉꾼들에게 “아, 죽음도 내 목숨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말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당시 노인들의 고통과 궁핍이 묻어난다. 단순히 그가 걸치고 있는 초라한 천 조각 외에도 “노인”이 대지(大地)를 두드리며 하소연하는 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노인들의 운명을 엿볼 수 있다:

지팡이로 일찍 혹은 늦은 시간에 두드리며,
말하였죠, “사랑하는 어머니, 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보세요, 내 육체, 피, 그리고 피부가 시들어가고 있어요.
아, 언제나 제 뼈가 휴식을 취할 수 있던 말입니까?

I knokke with my staf bothe erly and late,
 And seye, 'Leve moder, leet me in!
 Lo, how I vanish, flesh, and blood, and skin
 Allas! whan shul my bones been at reste? (444-47)

나이가 경험과 지혜를 부여한다고 한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병마의 고통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는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 속 “노인”처럼 당시 노인들이 사는 것 자체를 죽음만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언급한 초서의 작품은 물론 중세 시대 초서와 동시대에 살았던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노인과 관련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및 시인들의 글에 투영된 노인의 이미지는 긍정과 부정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나이 들,’ 그리고 ‘노인’에 대하여 실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는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중세 사람들이나 이들의 삶을 우회적으로 작품에 투영한 작가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처럼 중세 시대에도 조금이나마 ‘노화’를 늦추기 위한 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두 동원되었다. 한마디로 나이 들어 지혜와 지식이 쌓여 젊은이들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제공한다손 치더라도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당시 젊은이들은 물론 사회의 보는 태도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서의 작품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멜리비 이야기」의 나이 든 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나 이지우스가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젊은이들에게 이상적인 조언을 제공하나 어느 누구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작품들에서 젊은층의 어느 누구도 노인에 대한 우대나 존경을 표하지도 않는다.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 속 “노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것이 단순히 이야기 속 현상만이 아니라 실제 초서가 살던 당시 젊은 계층과 노인 계층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Minois 174). 흑사병의 창궐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한 반면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은 점점 노인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미노이스(Georges Minois)는 주장한다. 물론 젊은이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노인 인구가 중세 후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킨 이유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세 시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당시 현실 속 그들의 삶의 질, 그리고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에 비추어진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청지기, 노인, 나이 들

인용문헌

- 제프리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이동일, 이동춘 옮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 Bacon, Francis. *History of Life and Death*. Whitefish, MT: Kessinger Publishing, 2005.
- Blamires, Alcuin. *Chaucer, Ethics and Gender*. Oxford: Oxford UP, 2006.
- Boccaccio. *Decameron*. Trans. G. H. McWilliam. New York: Penguin Books, 1972.
- Brown, Jr., Emerson. “Januarie’s ‘Unlikely Elde.’” *NM* 74 (1973): 92-106.
- Burrow, J. A. *The Ages of Man*. Oxford: Clarendon P, 1986.
- Capellanus, Andreas. *The Art of Courtly Love*. New York: Columbia UP, 1990.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Larry Benson.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Curry, W. C. *Chaucer and the Medieval Sciences*. New York: Barnes & Noble, 1960.
- Draper, John W. “Browsing Through the Ages: Shakespeare’s Attitude Towards Old Age.” *The Journal of Gerontology* 1 (1946): 118-26.
- Everest, Carol A. “Sex and Old Age in Chaucer’s Reeve’s Prologue.” *Chaucer Review* 31 (1996): 99-114.
- . “Sight and Sexual Performance in the *Merchant’s Tale*.” Peter G. Beidler. *Masculinities in Chaucer*. *Chaucer Studies* 25. Cambridge: D. S. Brewer, 1998. 91-104.
- Field, Rosalind. “January’s ‘honeste thynges’: Knighthood and Narrative in the *Merchant’s Tale*.” *Reading Medieval Studies* 20 (1994): 38-49.
- Finlayson, John. “Of leeks and old men: Chaucer and Boccaccio.” *Studia*

- Neophilologica* 70 (1998): 35-9.
- Finucane, Ronald C. *The Rescue of Innocents: Endangered Children in Medieval Miracles*. New York: St. Martin P, 1997.
- Forehand, Brooks. "Old Age and Chaucer's Reeve." *PMLA* 69 (1964): 984-89.
- Fraga, Amelia. "On the Use of the Old Man Figure in a Medieval and a Renaissance Text." *SEIM* 9 (1999): 79-90.
- Heffernan, Carol Falvo. "A Reconsideration of the Cask Figure in the *Reeve's Prologue*." *Chaucer Review* 15 (1980): 127-36.
- Jacquart, Danielle and Thomasset, Claude. *Sexuality and Medicine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Polity P, 1985.
- MacLaine, A. H. "Chaucer's Wine Cask Image: Word Play in *The Reeve's Prologue*." *MAE* 31 (1962): 129-31.
- Minois, Georges. *History of Old Age: From Antiquity to the Renaissance*. Trans. Sarah Hanbury Tension. Chicago: Chicago UP, 1989.
- Nitecki, Alicia. "The Convention of the Old Man's Lament in the *Pardoner's Tale*." *Chaucer Review* 16 (1981): 76-84.
- Owen, W. J. B. "The Old Man in 'The Pardoner's Tale.'" *Review of English Studies* 2 (1951): 49-55.
- Petrarch, Francesco. *Letters of Old Age: Rerum senilium libri I-XVIII*. Trans. Aldo S. Bernardo, Saul Levin and Reta A. Bernardo. 2nd Vol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2.
- Richardson, Bessie. *Old Age among the Ancient Greek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33.
- Rosenthal, Joel T. *Old Age in Late Medieval England, The Middle Ages Serie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6.
- Shahar, Shulamith. *Growing Old in the Middle Ages*. New York: Routledge, 1995.
- Steadman, John M. "Old Age and *Contemptus Mundi* in the *Pardoner's Tale*." *Medium Aevum* 33 (1964): 121-30.
- Waterhouse, Ruth and Griffiths, Gwen. "'Sweet Wordes' of Non-Sense: The Deconstruction of the Moral *Melibee*." *Chaucer Review* 23 (1989): 338-61.
- Youngs, Deborah. *The Life-cycle in Western Europe, c.1300-c.1500*. Manchester: Manchester UP, 2006.

ABSTRACT**The Images of Medieval Old Man As Portrayed in Chaucer's *Canterbury Tales*****Dongchoon Lee**

How many knew their accurate ages in the medieval period cannot be known. Absolute accuracy mattered less than the cultural meaning given to each age. Therefore, old age was a highly subjective concept. A common practice, however, was to divide it into two: an early stage beginning around fifty to fifty-five was called *senectus*, and a second stage beginning in the sixties or seventies was called *decrepitude*. Criticism and praise concerning the elderly were often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old could instruct the young with words of wisdom and experience, while physically reminding them of the decay to come.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images of the old and the victims of ageing also predominate in late medieval literature.

In *The Canterbury Tales*, Chaucer rules out any excessive behavior of the old, including desire, sexuality, possessiveness, and so on. In particular, the old's excessive sexuality was particularly discouraged as an exertion which would get them to serve as fool. In Chaucerian tales, sexuality is the touchstone by which to define and judge his old figures either as positive or as negative. Far from being the calm and reflective fellow melting into his golden years, Chaucer's old fools such as Reeve, John, and January are obsessed with carnal pleasures together with other vices. On the other hand, Chaucer's old sages in *The Canterbury Tales* are commonly equipped with wisdom, experience, and prudence. They are depicted as the wise figures to offer advice to the young, though their moral or spiritual message is rejected. In spite of Chaucer's balanced attitude toward the old figures in his tales, it seems that medieval society tended not to appreciate individuals' growing old disgracefully.

Key Words | Chaucer, *The Canterbury Tales*, The Reeve, old man, aging